2019년 이슬람연구
제 14주 강의

이슬람의 종말관

1. 종말론의 신학적 위치

종말론의 영어단어 Eschatology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스카토스(eschatos)와 '교훈 혹은 이론'을 뜻하는 로기아(logia)의 합성어이다. 종합해보면 종말론은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훈'으로 정의될 수 있다.

1-1.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

성경의 천국에 해당하는 이슬람의 낙원(樂園. paradise)과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성경의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영적인 곳이다. 성경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한다(계7:9-10). 이슬람과 달리 성경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결혼생활(남녀관계)이 없을 것임을 가르친다(마22:30).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성도들은 결혼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인 생식(procreation)의 필요성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된다. 부활 때 성도들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거룩한 성에서 살아가게 되며 이 성에는 죄 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불의나 부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순결함과 거룩함만이 존재한다(계21:1-2). 또한 성경은 천국을 의(義)의 장소로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곳이다(벧후3:13). 천국에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계21:4).

1-3. 성경이 가르치는 심 판: 성도에 대한 심판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가르친다. 바울은 로마서14장8-12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했다.

심판의 날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심판자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 날 알라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에 대한 심판’을 받는 무슬림들과 달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reward)을 위한 심판을 받게된다. 진정 거듭난 자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것인데 이것을 신자의 영원한 안전(Perseverance of Saints, once saved always saved)이라 부른다(요10:28-29).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상급을 받게 될 자들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사는 동안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산 것은 아니며 복음의 확장을 위해 수고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요일2:28).

1-4. 성도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

고린도전서3장11-15절은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떤 재료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의 재료들은 연소성(combustible)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풀이나 짚 그리고 나무는 불에 타기 쉬운 재료들이며 금이나 은이나 보석(돌)은 연소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재료들이다. 바울이 말한 건축 재료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더글러스 코넬리(Douglas Connelly)는 “금, 은 그리고 보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며 주님을 높여 드리려는 동기, 순종, 정직함,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의미하며 풀, 짚, 나무는 썩어질 것들- 정욕, 육신적인 삶, 죄 된 동기, 자만과 교만의 행동, 이기적인 욕망...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1-4. 성도들이 받을 상급과 면류관

성경은 상급을 면류관으로 설명하는데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 생명의 면류관(the crown of life)으로 시험과 시련을 견디며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어진다(약1:12; 계2:10). 둘째, 영광의 면류관(the crown of glory)으로 주님의 양들을 위해 희생적으로 충성되게 감당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베드로전서5장 4절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 을 약속하고 있다. 셋째, 섞지 않는 면류관(the incorruptible crown)으로 인생의 경기에서 인내와 절제를 잘 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바울은 고린도전서9장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 말하고 있다. 넷째, 의의 면류관(the crown of righteousness)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4장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격려하였다. 요한계시록4장10절에서 이십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다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5. 성경이 가르치는 지옥

지옥은 본래 창조 때 계획된 장소는 아니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포하셨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후에 마련된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마25:41).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도 사단(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기에 마지막 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을 설명하는 신약의 용어들 가운데 하나가 게헨나(Gehenna)인데 이 용어는 흥미로운 기원을 가지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인간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비인륜적인 행위가 힌놈의 골짜기에서 행해졌다(역하28:3, 33:6, 렘32:35). 모압의 신 몰렉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힌놈의 골짜기에서 벌어졌는데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는 이 계곡을 죽임의 골짜기(valley of slaughter)로 불렸다(렘7:31-34). 후에 골짜기는 예루살렘성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죽은 짐승이나 범죄자의 시신들이 버려져 태워지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이런 이유로 골짜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로 알려졌다(마10장28). 지옥의 처참하고 무서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불, 활활 타는 용광로, 꺼지지 않는 불, 불못, 치욕스러운 장소, 멸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영벌의 장소, 어두움, 고통, 저주, 징벌, 그리고 둘째 죽음등과 같은 표현들이다(마13:42; 18:8; 25:41; 유7; 계14:10; 19:20; 20:10).

1-6. 성경이 가르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성경은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백보좌 심판(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이라 부른다(요. 5:28-29; 계 20:11-15).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신자 자와 달리 불신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백보좌 심판대에서 불신자들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계20:12-13). 불신자들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심판을 받지만 심판의 객관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의 유무'이다.

불신자들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왜 불 못에 자신들이 던져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며 각자가 받게 될 형벌의 정도도 여기서 결정된다(마12:36-37; 13:41-42; 25:46; 롬2:9; 빌1:28). 신자가 받게 될 상급(혹은 면류관)의 크기가 다르듯이 불신자들도 백보좌 심판대에서 받게 될 형벌의 정도도 (공통적으로는 영원히 고통의 삶을 살게 되지만) 차이가 있을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마10:15; 16:27; 눅12:47-48; 계20:12-13; 22:12).

1-6. 이슬람의 내세관: 이슬람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모든 인간은 죽게 될 것이며 종말론의 주요 주제인 죽음, 부활, 심판, 낙원, 그리고 지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슬람의 여섯 가지의 핵심교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지막 심판이다. 심판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심판자는 알라가 된다. 수라3:185절은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심판의 날 보상을 받게 되니라 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천국의 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노라 이 세상은 단지 기만의 속세에 불과하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꾸란 은 장차 어느 시점에 알라에 의해 죽은 자들이 부활될 것을 가르치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며 나팔이 불며 땅이 갈라지고 죽었던 몸들이 재수습되어 영혼과 재결합할 것을 말한다(수라46:33).

무슬림들의 구원은 세상에서 행해진 행위에 근거한다.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알라와 선지자 무함마드를 믿어야 하며 선한행위의 목록이 악한행위보다 길어야 한다. 꾸란 은 구원을 얻길 소망한다면 선한 행위로 알라를 기쁘게 할 것을 가르친다. 수라23:102-3절은 “그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노라 불이 그들의 얼굴을 태우니 그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맛보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1-6. 이슬람의 내세관: 이슬람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

이슬람의 내세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오직 알라의 은총(선택)을 입어 낙원에 가도록 예정된 자만이 낙원에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에서의 죄 용서는 두 가지 즉, 개인의 선한행위(공로)와 알라의 은총의 선택(Allah's choice of mercy)에 근거한다.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atonement)과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알라가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에 대해 주권적인 결정(arbitrary decisions)을 내리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선한행위가 마지막 날 죄 용서를 받을 만큼 충분하지에 대해 알 지 못하며 자신이 알라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다. 선한 행위와 알라의 선택적 구원을 가르치는 이슬람의 교리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부활과 심판의 날은 두려운 시간일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불신자들(비무슬림들)이 맞게 될 부활과 심판은 더더욱 두렵고 소름끼치는 사건이다.수라8:50절은 “천사들이 불신자의 영혼을 앗아가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 그들의 얼굴과 뒤를 때리며 가로되 지글거리는 응벌의 맛을 보라”고 기록하고 있다. 부활 후 무슬림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 알라 앞에 서게 된다. 수라3:185절은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심판의 날 보상을 받게 되니라 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노라” 고 기록하고 있다. 심판자 알라는 자신의 저울(the scale)로 선한행위와 악한행위를 달게 된다.

2. 이슬람이 가르치는 낙원

2-1. 절대초월적인 알라

내세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축복된 연합,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입는 천국생활을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매우 다르다(벧전1:4). 알라는 심지어 낙원에서 조차 알려지지(unknowable)않은 존재다. 무슬림들은 낙원에 들어가서도 그를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절대 초월적 존재다. 꾸란 이 충실한 무슬림들이 낙원에서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서도 알라가 낙원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알라는 완전히 초월적 존재이며(radically transcendent), 접근할 수 없으며(unapproachable), 알 수 없는 존재(불가지의 . unknowable)이다.

2-2. 남성 중심적이며 육적인 성격의 낙원

선한행위가 악한행위보다 많아 낙원으로 보내진 무슬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게 된다.이슬람의 낙원은 한 마디로 남성중심의 장소이며 매우 육적인 곳이다. 흐르는 맑은 물, 그늘이 있는 아름답고 황홀한 푸른 정원이 있고 세상에서 알라에게 충실했던 무슬림 남성들은 더럽혀지지 않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에 의해 섬김을 받을 것이 약속되고 있다.수라37:40-49절은 “그들을 위해서는 알려진(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에 맛이 있으며 냄새를 맡으니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일용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기쁨의 과일들과 명예와 존엄이 그것이라 그들은 가장 축복받은 천국에서 옥좌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흐르는 샘물에서 잔으로 순배를 들게 되나니 그것은 수정같이 하얗고 마시는 이들에게 맛이 있더라 그것은 머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취하지도 않더라 그들 주위에는 순결한 여성들이 있나니 그녀의 눈은 잘 보호되었고 눈은 크고 아름다우매(천국에서 만날 아내는 남편 외에는 다른 남성을 욕정의 눈길로 바라보지 아니하며 눈은 크고 몸은 아름다우며 마음은 순결한 아내이다) 마치 잘 보호받은 달걀과 같더라”고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2-3. 이슬람이 가르치는 지옥

꾸란은 선한행위보다 악한 행위가 많은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 보내지며 그곳은 뜨거운 바람과 검은 연기로 가득한 곳으로 가르친다. 수라56:42-44절은 “그들은 작열하는 불지옥과 들 끓는 물속에 있게 되고 검은 연기 속에 있게 되니 시원한 것도 즐길 수 없노라”로, 수라25:13절은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 협소한 곳에 버려졌을 때 여기저기서 죽음을 애원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단 지옥으로 보내지면 그곳에서 도망 칠 수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으며 고통에 영원히 시달리며 살게 된다. 일부의 무슬림 학자들은 지옥의 고통을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대다수의 무슬림 학자들은 문자적으로 믿고 있다. 또한 무슬림 신학자들 가운데는 지옥을 이슬람의 연옥(a kind of Islamic purgatory)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악한 행위가 무거운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죄 값을 치르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대기 장소로 보기도 한다.

이슬람은 오로지 무슬림들만 알라의 구원을 입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 이유는 심판의 날 알라에 의해 용납되는 유일한 신앙이 이슬람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수라3:85).

이슬람 신학에서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어야 할 자들이 있는데 첫째, 종교적 위선자들(religious hypocrites)이다. 위선자란 무슬림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는 아닌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슬람에서 이런 위선의 죄는 중대한 죄에 해당한다. “위선자는 지옥에서 지독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지옥 안을 돌아다니면서 동료들에게 세상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

결론: 기독교와 이슬람의 내세론의 주요 차이점

내세에 대한 기독교와 이슬람의 가르침 사이에 유사점(예: 부활과 심판이 있음)도 있지만 차이점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낙원(혹은 천국)의 성격의 차이이다. 이슬람의 낙원은 그 성격에 있어 육적이며 쾌락적인 장소이다. 충성된 무슬림 남성에게는 더럽혀지지 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주어지고 먹고 마시며 마음껏 육적만족을 채울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장소이다. 물론 꾸란 의 이런 낙원의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르다.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영적인 곳이다(마22:30). 육신을 입고 땅에 거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빌 1:23). 거룩한 성에는 더 이상 죄 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곳에는 어떠한 불의나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순결함과 거룩함만이 존재한다(계21:1-2).눈물, 애통, 사망, 곡 그리고 아픈 것이 없으며 며 주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치 않는 곳이다(계21:10-27).

둘째, 마지막 심판의 목적의 차이이다. 이슬람의 마지막 심판의 목적은 구원의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다. 마지막 날 알라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느냐?' 가 결정되며 그 결정에 따라 낙원으로 보내지거나 지옥으로 보내지게 된다.

결론: 기독교와 이슬람의 내세론의 주요 차이점

하지만 기독교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 마지막 심판의 목적은 의인을 위한 상급의 심판(judgement for reward)과, 악인들을 위한 영벌의 심판(eternal punishment)이 있을 것임을 가르친다. 성경은 개인의 영원한 운명은 세상에 사는 동안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육체적 죽음을 맞을 때 그의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감을 가르친다(요5:24; 고후5:8; 참고: 롬8:23; 엡4:19; 빌1:23; 계7:4, 15).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는 악인의 영혼은 고통의 장소인 하데(Hade. 음부. 지옥)로 가게 된다. 누가복음16장 19-31절은 음부에서 고통당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부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다.

셋째, 한 번의 부활을 가르치는 이슬람과 달리 성경은 두 번의 부활 즉, 믿는 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을 가르친다. 성경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the judgment seat of Christ) 앞에서 있게 될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며 백보좌 앞에서(the Great White Throne)행해질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친다.

넷째, 심판의 기준 및 심판자의 품성(속성)의 차이이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의 유무라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이가 심판받을 것을 가르치는데 반해 이슬람에서의 마지막 심판의 객관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슬람 신학에는 속죄(atonement)의 교리가 없으며 알라가 어떤 자를 용서하고자 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과 달리 공평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불의(unrighteous)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